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원중 제13주일 · 예수 성심 성월
제33권 31호(다해) 2013-6-30

[묵상]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고달픔입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기댔 곳조차 없다하시니
당신을 따라 어디를 가겠습니까!
가혹합니다.
아버지의 장사도 못 지내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시니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두렵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일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결눈길도, 뒤돌아봄도 안된다하시니
누가 감히 시작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다 따를 순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신 머리 기댔 곳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의 장사도 지내고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도 나누어
가족들과 함께
당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펴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이용식 베드로
특전미사	(생)오세호 레이몬드,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유철희 바오로, 이종원 베드로
주 일	(연)조지 가보라, 이경용 야고보, 권복남 모니카, 이용직, 이용식 베드로, 김혁기 요한, 전시웅 요한, 김금점 모니카,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고준희 제임스, 정학순 발라라, 주용범 아브라함, 김주일 미카엘, 노태임 루시아
낮 미사	(생)안연숙 루피나 가정, 이윤조 클라라, 임봉순 아녜스 & 박재우, 김현빈 바오로, 박인숙 오티리아, 정은주 세실리아, 김평, 김성민 카타리나, 박광식 바오로 & 최병덕 바오로, 국제찬 세바스찬 & 국수지 안젤라, 김정아 데레사, 김성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Kings) 19,16ㄴ.19-21

화답송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5,1.13-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 음 루카(Luke) 9,51-62

영성제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63	230	311
봉헌	나를 받으옵소서	268	243
성체	367	307	282
파견	312	314	22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가난한 이들

그와 동시에, 가난한 이들 자신도 복음화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이며,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그들을 행복한 이들과라고 부르십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마태 5,3; 루카 6,20)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을 참된 부로 여기고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분 안에 희망을 두는 이들의 단순한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게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의 덕인 가난은 많은 성인들이 했듯이 육성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것이고, 반면 빈곤은 흔히 불의의 결과로 또는 이기심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비참함과 굶주림을 특징으로 하고 갈등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는 "선택할 것"인 가난과 "물리쳐야 할 것"인 빈곤사이의 선순환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적 가치들인 동시에 보편적인 가치들인 검소함과 연대성"을 재발견해야 하고, "이는 정의와 검소함에 대한 선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 하느님 말씀과 창조의 보전

108). 하느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바인 세상에 대한 투신은,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어(요한 1,2 참조) 그 자체 안에 이미 말씀의 자취를 지니고 있는 온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선포자로서 창조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 주는 계시는, 또한 인간이 모든 사물을 창조주의 반영으로 알아보지 않고 그저 거리낌 없이 조작할 수 있는 물질로만 간주할 때에 우리가 그 잘못된 태도들을 고발하게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창조물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받고 사용해야 할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근본적인 겸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듯이 살아가는 인간의 교만은 자연을 창조적인 말씀의 업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연을 착취하며 파괴하게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맥락 안에서, 저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의 전술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계속>

지독한 불안정 속의 안정

우리 삶이란 안정된 것이라곤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도 어느 하나 안정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마저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적 평화나 위안을 맛보며 깨달음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은 먹구름 속에 갇혀 있기 일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고속의 탄탄대토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을, 그것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때론 그 길마저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저 불안정하고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머리 하나 제대로 낼 곳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따뜻한 기운과 힘이 있음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빛과 기운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요하지만 힘 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몸뚱어리와 자기 생각과 느낌만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 욕심을 비롯한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빛과 기운을 가려 버리고 알아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빛과 기운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리고 덮어 버렸음에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살려내는 그 빛과 기운으로부터 잠시

도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부요 수행입니다. 그러기 위해 간단없이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감싸고 돌봐 주고 키워 주고 있는 그 빛과 기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비감 때문입니다. 이 빛과 기운이 바로 성령의 현존이요 활동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만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때, 비로소 불안정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 휘청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지, 무엇이 덜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되며, 지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할 힘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되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마저 뒤로 한 채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온전히 투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라면 모두 이런 태도로 불림을 받았습시다. 오직 성령계만 마음을 모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투신은 우리 모두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 예수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이는 그를 너무 변했다 하고,
어떤이는 세월이 얼마데 여전하냐고 합니다.
대상을 바라볼 때 변한 것을 먼저 보는 사람과
변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보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니
어떻게 사느냐는 또 얼마나 클까.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권경아 요세피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주제표어 공모(백삼위 주관)
금년 추수감사절(11월28일) 합동 야외미사를 본당에서 주관합니다. 이 행사에 걸맞은 주제표어와 미사후 2부행사내용에 관해 여러교우들의 의견을 공모합니다.

● 주제 표어 : 한 문장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내용

● 2부 행사 : 미사후 각 성당간 친교를 나누는 2부 행사에 적합한 내용

● 제출 : 신중철 아브라함 사목회부회장 ☎(310)619-4343

✍ 감사합니다. ✍

◆ 7월1일부터 2013년~2014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사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도 사도 협의회가 새로 조직 뒀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유입됐습니다.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합류하신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시다. <임명장 수여 : 7월7일 주일남미사 중>

● 총회장 : 최기남 야고보

● 부회장 : 신중철 아브라함, 한창주 요아킴,

박인식 토마스, 오혜숙 루시아

● 총무 : 현석주 아오스딩 ● 부총무 : 정동호 하삼파오로,

김관기 라파엘, 김용 스테파노, 이정아 리디아

● 재무부장 : 오지희 요안나 ● 홍보부장 : 이만상 사도요한

● 소공동체부장 : 김명재 아가다 ● 전례부장 : 김성현 유스티노

● 복음화부장 : 이영식 크리스토퍼 ● 종교교육부장 : 금영도 베드로

● 시설관리부장 : 김찬구 요한 ● 조경부장 : 김양금 안나

● 청소년부장 : 남성철 베네딕도 ● 사회복지부장 : 이정훈 안셀모

● 체육부장 : 박개순 도미니코

● 감사 : 이병권 파비아노, 김대우 비오

● 연례회장 : 김정웅 요한 ● 요셉회장 : 정기은 비오

● 안나회장 : 미정 ● 성모회장 : 권순길 체칠리아

● 재대회장 : 윤경옥 실비아 ● 양업회장 : 금영도 베드로

● 대건회장 : 서성용 베드로 ● 자모회장 : 한길선레 스콜라스터카

● 빈첸시오회장 : 박홍룡 요셉 ● 배론청년회장 : 이범주 다니엘

● 백삼위장학회장 : 이재정 사도요한 ● 성소후원회장 : 강혜원 아네스

● 주일학교장 : 이인식 비오 ● 한국학교장 : 김화경 스텔라

<차장,구역장,반장 등 소공동체 신임 임원은 7/7일자 발표>

◆성모신심 미사 : 7월6일(토) 오전 8시30분

◆ 안나회 '웃음치료' 특강

● 일시 : 오늘 주일(30일) 오후 1시, 장소 : 강당

● 주제 :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 대상 :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

● 강사 : 손상언, 문의:☎(310)738-4387 한 루시아 안나회장

◆ 본당 수녀님 북미주 한인수도자 피정 참석

● 일정 : 7월1일(월)~7월18일(목)

● 장소 : 타코마 피정의 집(워싱턴주)

● 이번 피정이 특별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 본당 모든 봉사자를 위한 피정

● 일시 : 7월7일 주일 오후 1시~4시

● 대상 : 사목위원, 계단체장, 소공동체 부차장/구역장/반장, 주일학교/한글학교 교장

● 내용 : 봉사자의 은혜와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준비 방안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사목회장 ☎(310)569-3940

◆ 2013년 제26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르코 5,34)

● 일시 : 7월27일(토)~28일(주일)

● 장소 :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강당

● 강사 : 박효철 신부(청주), 임문철 신부(제주), 정광호 신부(보스턴), 배기현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지도)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213)435-7570

● 준비물 : 도시락과 생수는 각자 준비하십시오.

● 문의 : 김충섭 마틴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회장

◆ 예비자 교리반

● 교리기간 : 12월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

● 문의 : 이영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6월30일(주일) : P.V. 1반(콩나물비빔밥 \$3)

● 7월7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순복	김 옥	김일선	김학점	김현숙	박기돈
	박종열	서재원	안민수	양영관	오신재	유경자
	유선식	육근주	이경태	이미경	이우성	장영진
	정열모	조준제	최길주	최이원	최태훈	최희숙
	홍석인					
합계 : \$2,390						
주일미사 헌금: \$3,140						

성전헌금	김 옥	김현숙	안민수	양영관	유경자	유선식
	이경태	이우성	정열모	조준제	최길주	최이원
	최태훈	홍석인				
합계 : \$1,070						
감사헌금 : 백낙현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방학...학생미사는 계속 드립니다.

본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오늘주일부터 9월1일 주일까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학교수업은 없지만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계속합니다.

(오늘주일과 7월7일 주일은 어른미사로 진행합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 모집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본당 마라톤 동호회가 14세 이상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장소 : 사우스 하이스쿨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목요 그룹 성서 공부반 개설 예정

매주 목요일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성서공부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개강날짜 및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 백삼위 탁구동호회 회원 모집

- 대상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후 3시 강당
- 회비 : 연 \$50
- 문의 : 동호회장 김용스테파노 ☎(310)926-2248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5학기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3'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7월26,27,28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KYCR 제22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8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리버사이드 Divine Word 피정센터
- 지도신부 : 정브라이언 가브리엘 신부
(한글강의와 영어강의가 따로 준비되어있음)
- 주최 : KYCR 남가주성령쇄신청년봉사회
- 참가대상 : 18세~30대 미혼/기혼 청년
- 회비 : \$160(7월20일이후 \$180)
- 연락처 : 이원록 ☎(562)688-4322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213-675-0498 7/14(주일) 낮미사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이근태 세르지오 999-5226 7/14(주일) 낮미사후 토런스 팍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7/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이진향 아네스 989-0366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7/13(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토런스 남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7/9(화) 오전 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조정선 마리아 213-550-6653 7/12(금) 오후 7시 강당
토런스 북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7/21(주일) 오전 10시 델슨 팍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이병우 마리노 784-0585 7/27(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P.V. 구역 합동반모임 7/13(토) 오전 11시 라이언 팍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합동 반모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다섯째주 가정의 날

다음주 단체모임

본당 봉사자들 피정

오후 1시~4시 강당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교회가 가르치는 참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게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눈을 흘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은 물과 빵으로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해야 하는 육체적 존재지만, 동시에 영혼의 목마름에 사랑과 진리를 필요로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새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영혼은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야 만족과 평화로운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물음은 우리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두신 것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여 천국(天國)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721항) 우리는 생의 의미와 목적지를 알았으니 이제 최상의 방법과 최고의 길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은 단단한 지반 위에 명확하고 훌륭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탄생합니다. 우리 삶의 설계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반석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행복을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 (시편 42,2-3) 이 행복에 대한 갈망은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자기 북극을 가리키듯이 행복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이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기쁨을, 영혼에는 끝없는 행복을 채우시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참행복은 예수님 설교의 핵심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녁 식탁에 올라올 빵과 다음 날의 보다 안락한 의식주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며 걱정하지 마라." (마태 6,31) 하고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 5,3) 이라고 시작되는 이 가르침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시니 분명 우리의 해를 넘어서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은총입니다. 참행복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

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깨끗하게 해주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닦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숨막히게 하는 물질 문명 사이를 꿰뚫고 불어오는 신선한 새벽 공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숨 쉬게 하고 진정한 삶의 평화를 가져다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행복'입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매일 시(詩)를 읽는 이유

"우리 딸도 한비아님처럼 키우고 싶어요."

제 책을 읽은 엄마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면 저에 대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키우기 어려운 딸인지요. 명랑, 발랄하고 심부름 잘하는 건 좋지만, 웅고집에다 정리정돈 잘 안하고, 맨날 동탄지같은 생각만 하고, 말도 무진장 빨라서 늘 잔소리를 해야 하는 딸입니다.

솔직히 저도 천천히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손등과 손바닥에 매직펜으로 '천천히!'라고 쓰는 등 용하다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는 걸 보면, 저는 말 빠른 유전자를 타고 난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빠르기를 고칠 수 없으니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시 한 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물수록 입을 크게 벌려서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읽다보면 발음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선생님의 조언으로 시작했으니 30년도 넘은 생활습관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하다 보니 수십 번 반복해서 읽은 시는 절로 외우게 되고, 그 외운 시 구절들은 글을 쓸 때나 일상생활 중 요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일이 꼬이고 겹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짧은 시로 위로의 말을 대신했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미터 전, 하느님이 벼랑 끝으로 나를 밀어내신다. 1미터 전, 계속 밀어내신다. 벼랑 끝, 아니야, 하느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확, 밀쳐 떨어뜨리셨다. ...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20대 초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운이 달려있는 것만 같아 절망에 빠졌을 때, 미국인 선교사가 보내준 이 시 한 편에서 제가 받은 위로를 그 친구도 받았으면하는 마음입니다.

시가 저에게 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런 고마운 시들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일간 신문, 지하철 유리문, 인터넷 시 사이트, 빌딩 벽 글판...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를 읽게 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당연히 성경 속의 시, 시편도 자주 읽습니다. 시편에 있는 150편의 장시에는 인간의 화노애락, 회개와 용서,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 매일 아침 큰소리를 내서 읽으면 발음 연습과 함께 아름다운 시편기도를 바치는 셈이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질 것입니다. 그나마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흥 글로리아님! 비록 발음연습 때문에 시작했지만 큰소리로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여는 셋째 딸을 보고 기특하다 하실까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아 바아 /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